

광주시 노인일자리 2만363개 만든다

558억원 투입 올 일자리사업 대폭 확대...작년비 4464명 늘어
공익활동 1만6059명·시장형 2765명·신설 사회서비스 492명

광주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58억3000만원을 투입해 2만36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411억5500만원, 1만5899명)에 비해 예산은 146억7500만원(35.6%)이, 참여자 수는 4464명(28.1%)이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1만6059명, 시장형 2765명, 인력파견형 1047명 등이며, 올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에도 492명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돌

봄시설이나 취약계층 지원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배의 활동시간과 수당이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장애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빛고를 질서지킴이' 사업,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안전한 이용 및 전통놀이 체험을 도와주는 '꾸러기 놀이대장' 사업 등 따뜻한 복지과 세대 간 통합을 구현하는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시행한다. 각각 학교 화장실 청소업무 등 노인일자

리 사업과 연계한 '우리학교 깔깔미' 사업도 교육청과 협조해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종합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상담, 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따뜻한 복지일자리를 발굴하고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인권·안전교육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 시기도 앞당긴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 시작했던 노인일자리사업을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더불어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은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업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각 자치구와 빛고를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가 서둘러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김일홍 시 복지건강국장은 "노후적응 없는 행복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3만개를 창출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온기텐트서 한파·칼바람 피하세요

동구 12개 설치 2월까지 운영

광주시 동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 보도 대기선, 버스정류장 등에 온기텐트(사진)12개를 설치하고 2월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온기텐트'는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이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시민들이 추위나 강풍 등을 잠시 피할 수 있는 시설물로, 동구는 지난해 5곳을 시범운영 후 올해 확대 설치했다. 형태는 캐노피와 몽골텐트 두 가지이며 설치장소는 금남로1가 YMCA 앞 버스승강장, 조선대정문 건너편 횡단보도, 남평주사거리 버스승강장 등 12곳이다. 이 중 7곳은 여름철 그늘막을 재활용해 예산을 절감했다. 동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시기에 시민들이 온기텐트에서 잠



시나마 추위를 피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가부 청소년정책평가 북구 국무총리표창 수상

광주시 북구는 "여성가족부 주관 '2018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13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성과 등 3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서면·현장 실사 등으로 이뤄졌다. 북구는 청소년 참여 및 공간 활성화,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영역 확대,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전국 최초로 교육·생활·심리정서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운영, 직업탐방 및 창업·전문동아리 육성 등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주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카페' 및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청소년정책 의 견제시 및 자문·평가, 모니터링·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



서구 풍암동 3020m 옹벽 담쟁이 덩굴 가든 조성한다

나무 조형물·담쟁이 녹화사업
주민들 그림·사진작품도 전시

광주시 서구는 풍암동을 둘러싸고 있는 옹벽(사진)에 담쟁이 덩굴 가든을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풍암동은 금당산 자락을 잘라 조성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3020m의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서구는 나무 조형물과 담쟁이 등을 활용해 옹벽 녹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된 1차 100m 구간에는 친환경 목재를 활용해 안내판, 갤러리, 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구조물 하단에 담쟁이를 식재할 예정이다. 올해 진행되는 2차 구간에는

풍암동의 옛 모습과 전해오는 이야기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또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 사진작품 등을 함께 전시해 볼거리에 진근함을 더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풍암동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여 조성부터 관리까지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진행하게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농기센터 농약잔류허용 강화 교육·홍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월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과 홍보활동에 나선다.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률기준 0.01 PPM을 적용하게 된다.

PLS는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의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 영농모니터요원 총회를 시작으로 농업인 1700

명을 대상으로 총 25회에 걸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바른 농약 사용 실천법을 홍보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PLS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동절기 독거노인 건강 챙긴다

홀몸어르신 돌보미 30명 위촉
800여명 주2회 건강모니터링

광주시 동구가 겨울철을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를 들어간다. 6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최근 홀몸어르신 돌보미 30명을 위촉하고, 응급상황에 노출된 독거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했다. '홀몸어르신 건강돌보미'는 홀몸기

(1월~2월)와 홀서기(7~8월)에 지역 독거노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열압축정 등 주2회 건강모니터링을 집중 진행한다. 모니터링 결과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는 담당 방문간호사와 정보를 공유, 신속히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폭염·혹한 등 이상기후 대비 건강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2510명에게 건강돌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남구 재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추가 구축

광주시 남구는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시설 하우스가 많은 대촌지역과 지난 해 침수피해를 입은 백운광장 및 봉선동 명성아파트 일대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상황 전파로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 한해 21곳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구청 재난 상황실에 마련된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동돼 재난상황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장치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설치되는 곳

은 대촌지역 마을 18곳을 비롯해 지난해 8월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백운광장과 봉선동 명성아파트 주변, 무등시장 등이다. 남구는 폭설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시설이 많아 농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촌지역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할 방침이다. 대촌지역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공사는 다음달 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26곳에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구축 공사 작업이 완료되면 총 4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함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씩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